

# 2004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관한 소회

김성란

## ●●● 들어가며

현장은 현장을 창조했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만 온전히 복원될 수 있습니다.

2004년 연말에 뜨거웠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의 여의도 현장이 마감된 지도 한참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지난 연말을 국민단식농성단과 함께 여의도에서 새해를 맞았던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그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찬바람 속에서 하루하루를 '56년 묵은 역사의 숙제를 끝내기 위하여, 자유를 향하여, 평화를 위하여, 통일을 향하여... 염원을 모으던 사람들의 흔적이 '무형의 기운' 로 남아 있습니다. 그 여운은 전국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이들의 가슴 속에 언제든지 다시 활짝 만개할 수 있는 단단히 여문 실한 종자가 되어 자리잡혀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언제나 느끼듯이 현장을 고스란히 전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한 것입니다. 특히나 변혁의 현장이나 요동치는 정치적 투쟁의 화점을 만들어내는 현장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의 변화무쌍함과 그것을 일구어내는 사람들의 긴장과 애씀, 그 결과로 겪게 되는 희로애락들이 촘촘히 얽힌 한덩어리로 존재하기에, 이를 분리하여 정리해본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현장은 그 현장을 창조했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만 온전히 복원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성란 \_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사무총장, snunited@paran.com

## ●●●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의 현장은 전국 방방곡곡이었습니다

2004년 연말을 들썩이게 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의 주체는 바로 이곳저곳에서 일하고 있는 국민대중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뉴스를 지켜보며 여의도 단식농성단의 상황에 애타하고, 퇴근길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보안법 하나 폐지 못시키는 집권 여당을 성토했거나 한나라당의 사생결단 보안법 사수 행태에 비분강개하던 수많은 생활인들이 있었던 그 곳이 투쟁현장이었습니다. 한달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용돈이나 생활비를 쪼개어 수천만 원의 투쟁지원금을 보내준 그 정성들이 있던 전국 곳곳이 바로 투쟁의 현장이었습니다.

투쟁의 여운은 아직 남아있으나 국가보안법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2005년에는 반드시 끝내기 투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04년 투쟁의 소회를 간략하게나마 해보는 것은 다가올 ‘끝내기 투쟁’을 시작하는 의미입니다.

## ●●● 민주개혁의 에너지로 가득했던 2004년 봄의 향정

작년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그 이전 55년 동안 줄기차게 전개해왔던 폐지 투쟁과는 그 질을 달리 합니다. 작년은 명실공히 국가보안법 체제 56년만에 ‘실질적인 폐지’를 목표로 삼고 그 가능성을 믿으며 투쟁을 일구었던 첫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4년 봄은 분명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만한 민주와 개혁의 에너지로 들끓는 희망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겁을 먹은 수구 집단의 대통령 탄핵과 역사 회귀 책동, 날카로운 역사적 직관력으로 민주 수호의 촛불을 들어 이를 맞받아쳤던 국민대중, 그리고 꿈과 희망을 싣고 출범한 17대 개혁국회! 2004년 봄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낡디 낡은 법과

는 어울리지 않는 민주개혁의 향연이 펼쳐진 시간이라고 할 만합니다.

17대 총선이 끝난 직후, 시민사회는 신속하고도 이견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제1의 개혁 과제로 제출하였습니다. 2004년 봄의 항쟁 속에 응축되어 있는 민주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국민적 요구에 입각할 때나, 국가보안법 폐지 없는 민주개혁의 원천적 불가능성에 입각하면 당연한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의 단결은 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제적, 이념적 변화를 추동해내는 국가보안법 문제의 해결은 다분히 전략적 성격을 가지는 투쟁과제이기에 지난 56년 동안 각 투쟁의 시기마다 취해 온 전술적 목표는 다양했고 그만큼 시민사회의 전술적 일치성을 보장하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이 왕성하게 벌어졌던 2000년 투쟁에서도 시민사회의 실질적 목표는 개정과 폐지로 이원화되었던 사실에 비추어볼 때, 2004년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의 실질적 폐지라는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이견 없이 단결했던 초유의 해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56년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완강하게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던 출발점이자 성과를 만들어낸 근원으로 됩니다.

이처럼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민주와 개혁의 열기로 들끓었던 사회적 환경과 시민사회의 정치적 단결이라는 주체적 조건이 결합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담고 전개되었습니다.

## ●●● 우익 총결기! - '안보주의와 민생주의'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의 문제가 국민 전체의 관심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던 9월 무렵부터 사회 한편에서는 광기에 가까운 수구적 색깔 선동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지난 반 세기를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었는지, 사회의 지도층을 자처해온 사람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얼마

나 단순하며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였습니다.

## ●●● 그들의 정공법 - 안보주의

2004년 하반기, 서울 시청 광장에서는 참으로 기막힌 구호들이 외쳐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휘날리는 성조기 속에 올려퍼지던 “부시의 재선과 재선 3일만에 이라크 팔루자 총공격을 감행한 것은 하느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니 부시 대통령을 찬양하자”라는 구호를 섬뜩함과 분노가 뒤범벅이 된 채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온 세상이 전쟁광으로 낙인찍은 ‘부시’에 대한 찬양과 온 세상이 함께 분노하는 미국의 팔루자 재침공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한 찬양거리로 삼는 그들의 뇌 구조는 도무지 인간의 것과 합치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권 안보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되고 심지어 영웅화되던 야만스럽고도 야만스러운 구시대의 집행자들이 고개를 뺏뺏하게 든 채 광장을 점령하고 또다시 야만으로 돌아갈 것을 선동하는 꼴을 참아내기가 그리 쉽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총궐기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 사수에 목숨을 걸겠다고 연일 외쳐댔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밀려 바뀌 썼던 알록달록한 모자를 벗어던진 백발의 우익 전사들이 단일한 색깔의 모자로 고쳐 쓰고 백주 대낮에 총궐기해 나섰습니다. 그들이 입고 나선 군복과 훈장은 군사파쇼 시절을 연상시켰고, 그들이 두른 백색 머리띠는 “때려잡자 공산당!”을 외치며 몽둥이를 휘둘렀던 우익 무력 집단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서울 시청 광장에서 외쳐지던 군대 구호와 ‘충성’이라는 경례 소리는 1960년, 1980년에 서울 한복판을 점령한 채 행진하던 군대 장갑차 행진 대열 장면과 겹쳐졌고, 조갑제 선생(?)이 지도자가 되어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우익 사상무장대회는 체육관 선거 시절, 그 자리에 있던 쿠데타 인사들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인간과 생명이 극도로 경시되던 시절을 대표하는 모든 ‘상징’들이 총출동한 국가보안법 사수 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 ●●● 그들의 외곽치기 - 민생절대주의

그러나 고전적인 안보주의를 앞세운 그들의 정공법은 그들과 다른 미래를 쳐다보고 있는 국민들을 크게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며, 고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 자들은 친북 좌파 세력’이라는 그들의 마타도어는 국민들 속에 60년이나 틀고 앉아있는 안보주의를 살짝 자극할 수는 있었겠으나, 국민들의 시대감각마저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국가보안법 사수 투쟁은 정공법이 아니라 외곽치기 전술로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적의 약한 곳을 쳐라!” 그들이 연구를 거듭하여 택한 외곽치기는 추석을 전후로 하여 조선일보 등 수구 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되기 시작한 경제난, 민생난이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적으로 취급하는 정부 여당의 최대 약점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개혁타령이냐”는 그들의 선전은 끝내 “보안법을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하던 대통령의 말을 “산이 높으면 돌아감이 옳다”는 말로 전변시켰고 “개혁 세력은 반민생 세력”이라는 그들의 찌라시는 생활고로 인한 국민들의 짜증을 흡수하면서 실체가 없는 ‘민생 절대주의’를 양산시켰습니다. 민생 절대주의는 승승장구하여 2005년의 개혁 실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 수구 세력과 국가보안법은 운명공동체

2004년 그들의 국가보안법 사수를 위한 총궐기는 새삼스러운 깨달음을 얻게 했습니다. 첫째는 국가보안법의 운명과 그들의 운명은 함께 한다는 것, 둘째 그러하기에 그들은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당위적인 인식의 공간을 넘어 뿔뿔 살아있는 현실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수구라고 불리우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국

가보안법은 폐지될 수 있을까요? 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야만의 집행자들인 그들을 과연 해체할 수 있을까요?

2005년의 끝내기 투쟁을 위해 우리는 분명 양날의 칼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 ●●● 2004년 두달 간의 여의도 투쟁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60년 동안 분단 효과에 대대로 감염되어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실로 변혁입니다. 2004년 우리는 그 변혁을 이루고자 했고, 끝내 마침표를 찍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실로 큼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투쟁했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 굳게 새겨진 승리에 대한 신심일 것입니다. 아마도 2004년 연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26일을 굶은 사람에게 “당신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주저 없이 그렇다고 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한 사람은 반드시 신념과 낙관을 획득합니다. 2004년의 투쟁은 그런 신념과 낙관을 일구어낸 승리한 투쟁이었습니다.

## ●●● 11월 국민실천단은 얻어맞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홍보했다

수구 세력들의 극악한 국가보안법 사수 책동이 한참 전개되던 2004년 11월 2일, 우리는 여의도 국회를 바라보며 5동의 천막을 치고 농성투쟁을 시작하면서 국민실천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농성이 시작되자마자 50여 명 남짓으로 꾸려진 국민실천단은 아침 6시부터 시작하여 저녁 11시까지 주요 역사로, 사람들이 운집한 도심으로, 지하철로, 한나라당사로, 열린우리당사로, 매일 7시에 진행된 촛불집회로 그야말로 쉬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군대보다 더 군대 같은 높은 규율과 목적의식을 가진 11월의 국민실천단이

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실천단의 활동은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의 토대를 쌓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전국의 시민사회를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으로 결집시키는 선봉대였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극악했던 여론을 반전시키는 촉매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생론이 등장하여 국민여론이 그다지 좋지 못할 때 시작된 활동이어서 별스러운 고단함이 동반되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11월 실천단의 매일 저녁 총화회의에서는 별스러운 무용담이 쏟아지기 일수였습니다. “오늘은 종각에서 누가 반공 할아버지의 발길에 차였다”, “누구는 지하철에서 반공 부대원들에게 쫓겨났다.” 등등. 심지어 어느 날은 한 여학생 실천단이 반공 할머니에게 손가락을 깨물려 돌아오는 바람에 많은 사람을 비통하게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직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는 않지만 국민실천단이 가는 곳마다 ‘방해조’가 동시에 뜨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만약 설익은 의지였다면 이런 상황을 넘어서 곳곳히 국민들을 만나 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루 실천을 마치고 들어와서 “오늘은 국민들이 투쟁기금을 많이 모아주었다”며 환하게 웃던 모습과 “오늘은 반공 할아버지들에게 맞지 않고 토론을 할 수 있었다”면서 자랑스러워하던 학생 실천단의 모습이 애잔하게 떠오릅니다. 이런 11월 국민실천단의 활동이 있었기에 12월의 역사적인 1300명 국민단식농성이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 ●●● 1,300명의 끝장국민단식단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사생결단의 결사체, 대동단결의 결사체였다

2004년을 국가보안법 폐지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결심이 역사의 반동들과 유약한 정치권에 의해 무산될지도 모르는 12월의 초입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사생결단을 했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의 화점을 만들지 못하면 국민 대중의 마음을 진감시킬 수 없고, 국민들

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상황은 한걸음도 진전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 나서는 거센 반동의 힘을 제압하고, 끈지 못한 신념과 허약한 의지로 인해 국민들이 손에 쥐어준 민주개혁의 의사봉마저 두드리지 못하는 다수 여당으로 하여금 역사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실질적으로 폐지시키는 것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끝장국민단식단에는 신혼여행을 뒤로 하고 동참한 새내기 부부가 있었는가 하면, 단식농성장을 농성장을 떠나지 못해 결혼식을 연기하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학교 졸업 후 한 번도 못 만났던 선후배가 십 년의 세월을 넘어 단식농성단원으로 만나 회포를 풀기도 했고, 회사 휴직계를 제출하고 동참한 사람이나 가게문을 걸어 잠그고 온 자영업자까지 실로 그 면면은 알록달록했습니다. 또한 각계 각층이 거의 빠짐 없이 국민단식단에 결합하여 함께 투쟁한 대동단결체였습니다.

현장이 마감된 지 두달을 넘어 서는 지금까지도 국민단식농성단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의료지원단과 단식지원팀입니다. 단식 10일째를 넘어가면서 쓰러지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한두 명으로 시작된 탈진의 행렬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의 밤잠을 자지 않고 단식단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눈물범벅이 되어 병원 후송 처리를 하던 의료지원단과 단식지원팀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칼바람 속에 굶주린 몸을 이끌고 매일매일 전개했던 실천투쟁의 장은 물론이고, 안산으로 정읍으로 원정투쟁을 나서는 단식단에게 조금의 온기라도 더 챙겨주기 위해 불판과 핫백을 들고 함께 뛰던 모습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이어진 국민성금 행렬은 국민들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동참 행렬이었고, 단식단원들에게 국민과 함께 싸우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확인 도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작게는 1만 원부터 많게는 백만 원까지, 채 한달이 안되는 기간 동안 모여졌던 수천만 원의 국민성금은 단식농성단의 생명을 이어주는 소금이 되었고, 물이 되었으며, 비닐 훑

겹으로 만들어진 천막농성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온풍기가 되어 단식단을 지켜주었습니다.

### ●●● 끝장국민단식단은 끝장투쟁을 전개했다

하루하루 단식으로 굳어가는 무릎과 조여드는 허리의 통증을 참으며 배고픔을 넘어서 역사 속에 온몸을 보시하던 국가보안법 폐지 끝장국민단식농성단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25일째인 12월 29일, 여야 야합에 대한 항거로 물과 소금을 끊는다고 선언하며 깡마른 몸을 별떡별떡 일으키던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저려옵니다.

12월 6일 300명으로 시작한 단식단이 1300명까지 확대되는 과정은 단식일자가 늘어가는 과정이었고 더불어 사회적 긴장이 높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여의도 단식장으로 국민들의 눈을 모아들이는 과정이었고 그만큼 비례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높혀가는 과정이었습니다.

12월 6일부터 27일 동안 끝장국민단식단이 전개한 투쟁을 생각해보면, 일상적 시기에 1년 동안 하는 실천활동을 넘어설 만큼 고강도의 투쟁 행진이었습니다. 12월의 국가보안법 정세는 조석으로 변하였고, 그만큼 단식단의 투쟁도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12월 20일경부터 여야 합의 처리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급속히 개혁의지를 상실해가기 시작하면서 단식단의 사생결단의 투쟁의지는 남김 없이 발휘되었습니다. 2004년을 열흘 남겨놓고 한 단식단원이 자신의 투쟁결의를 적은 메모가 남겨져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없애자고 시작한 일인데

남은 열흘 동안 이를 이루고자 하면 나를 죽이자고 해야 하는데

열흘의 기간 동안 '사즉생' 을 이루자면

투쟁만이 유일한 수단이자 생존의 방법

죽자고 덤비고 있는 것이기에  
덤벼서 쓰러뜨려서 살려고 하는 것이기에  
중단 없고, 포기 없는 투쟁만이 절실하다.

(단식 15일째, 여의도 천막에서)

하루에도 수 차례씩 진행한 00규탄 기자회견, 00축구 기자회견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열린우리당사로, 한나라당사로, 천정배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안산과 김원기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정읍까지 수십 차례 오고 갔던 원정투쟁. 20일 이상을 굶은 몸으로 폐지법률안 국회 직권상정을 요구하기 위해 체감 영하 20도를 넘는 새벽길을 걸어가 지켜 섰던 의장 공관 앞 출근길... 이 모든 곳에서 단식단원들은 차례로 탈진해 쓰러졌습니다.

금기야 12월 29일, 여야 지도부가 대체 입법을 추진한다는 소식 앞에 25일을 굶어 속이 텅텅 빈 몸뚱이를 이끌고 단식단원들은 대체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 진격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탈진해 쓰러져있거나 병원에 후송되었던 단원들까지 모조리 뛰어나와 국회로 내달리며 분노를 터드렸습니다. 날카로운 전경의 방패는 단원의 머리를 찍어 피를 쏟게는 했을지언정 끝내 국회로 달리는 이들의 발걸음을 다 막아내지 못했고 국회 안으로 울려 퍼지는 이들의 절규를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12월 29일, 단식단원들의 목숨을 건 국회 진격 투쟁은 대체 입법을 저지시켰습니다.

단식단원들 중에 누군가가 조용히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소금과 물을 모두 먹지 않겠다”. 12월 29일 저녁, 촛불대회에서 총 214명의 단식단원들이 단수단금을 선언하였습니다. 촛불을 든 수천 명의 참가자가 모두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장기단식 후에 단수단금은 자살행위라고도 했습니다. 2004년의 남은 이틀은 단수단금을 한 단식단원들이 차례로, 무더기로 쓰러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2004년 12월의 끝장국민단식단은 애초의 결심대로 사생결단의 투쟁을 전개했고 못견뎌 쓰러질 때까지 몸 속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결코 잊혀질 것 같지 않은 절박했던 긴장의 시간이었습시다. 끝내 2004년을 국가보안법 폐지의 원년으로 만들지 못하고 또 다시 2005년 1월 1일을 국가보안법 폐지의 촛불로 밝힌 국민단식단원들은 한 청년회에서 준비한 미음에 눈물을 섞어 마셨습니다.

## ●●●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 과반수를 폐지 찬성으로 모아내다

2004년 투쟁은 미완성이지만 참으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남겼습시다. 그 중에서도 가시적으로 투쟁의 성과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역사상 처음으로 폐지 여론이 국민 과반수를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국가보안법 사수를 위해 총궐기한 수구 세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장국민단식단을 비롯하여 민주개혁과 진보를 지향하는 시민사회가 일구어낸 귀한 성과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뜻이 모이면 반드시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국민정치의 시대로 일컬어집니다. 199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국민 대중의 정치적 진출이나, 사회 공통 쟁점에 대한 분명한 국민적 호불호의 표현은 우리사회의 발전을 추동하고 있는 근원적인 힘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모든 운동의 승패 역시 국민대중의 의사에 의해 좌우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 연말 투쟁이 있기 전까지 국가보안법 존치 여론이 폐지여론을 압도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민주와 인권을 열망하면서도 반민주와 반인권의 상징처럼 되어온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10%대의 찬성률에 머물게 했던 원인을 생각해보면 지난 연말 국민들의 인식에는 커다란 전변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국가보안법 사수자들의 무기인 분단법, 반복법으로서의 국가보안법의 절대적 지위가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국가보안법 존치의 마지막 보루인 분단과

반복이라는 구시대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넘어서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 소회를 마치며

세상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북의 민중들의 지향이 평화통일로 향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60년 된 한국사회의 수구적 질서들에 파열구가 나면서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역사적 전환기라 할 만합니다.

역사적 전환기에는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낡은 구시대를 규정했던 제반의 사회적 하드웨어들이 심한 몸살을 거치면서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새로운 업그레이드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연말,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개혁과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역사가 제기하는 필연적 과제는 그 진통이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풀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역사의 진보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4년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사회적 진통은 반드시 폐지로 마무리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여의도 겨울 칼바람을 고스란히 받아챘던 이들 모두에게 역사적 반동의 실체를 또렷이 확인시키며...투쟁은 다시금 미완으로 끝났습니다.

확신컨대 시대발전의 속도와 국민의 지향에 입각해볼 때, 가까운 시일 내에 국가보안법이 제 운명을 다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 한 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허나 역사발전의 교착점에서 무게감 없이 제자리를 돌며 길목을 방해하고 있는 텅 빈 낡은 배의 형상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2005년 바로 이 시간, 국가보안법이라는 존재가 아직도 남아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뼈아프게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면 뼈아프게 떠오름이 2005년 끝내기 투쟁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